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의미와 정책적 개선 방향

A Reform Measure of Public Database Support Program



이재태 체신부 정보통신국 부가통신과장

Lee, Jae-Tae, Director
Ministry of Communications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s
Promotion Bureau,
Enhanced Communication DIV.

개요

19 93년 8월에 정보화촉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한후 93년 12월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그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사업은 제1차년도인 금년에 48개 기관에서 72과제를 개발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내에 설치된 공공

데이터베이스개발 추진협의회에서 '95년도 과제 선정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초에 선정된 과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지상에서 여러분 공지한 바와 같이 4개년도(94-97)에 걸쳐 800억 규모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게되는 본 계획이 절반 가까이 진행되어 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 베이스의 의미와 역할

데이터베이스는 일상 생활, 경제 활동, 연구 개발 및 예술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통하여 제공하므로써 해당 분야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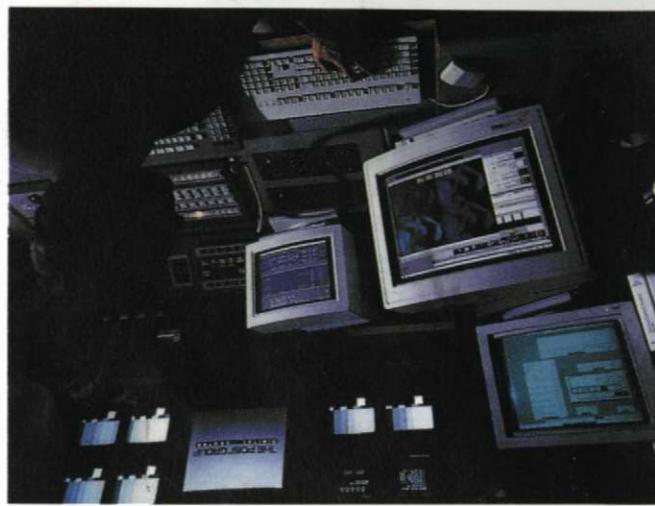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 산업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치효용성·시급성·대표성 등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체신부 장관이 선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데이터베이스중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공익성이 강조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으로 지원되는 800억 규모의 자금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해외의 대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매우 미약한 지원 규모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역사를 보더라도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단일 부문에 대하여 민간 기



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기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개개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지원 규모는 미약한 면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사업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전반에 대한 동기부여는 2차년도인 '95년도 과제 선정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열기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었다. '95년도 과제접수 현황을 보면 총 215기관에서 519개 과제를 접수시킨바 이와같은 활발한 참여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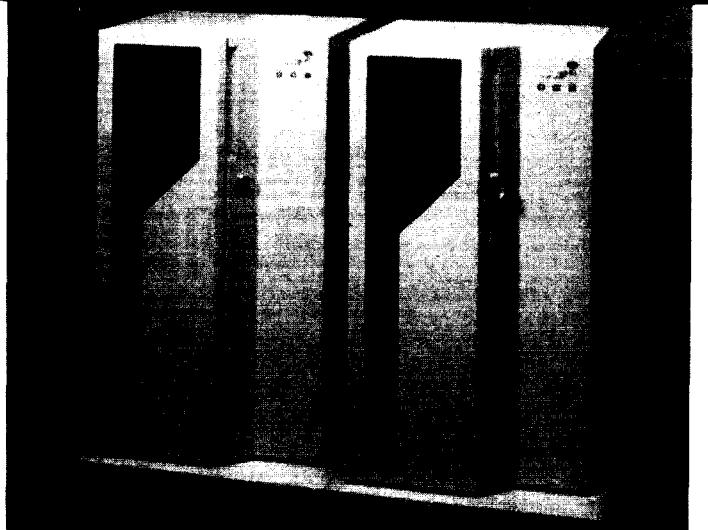
향후 개선 방향

그동안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과제 선정시 수요자 측면의 조사 결여, 둘째, 과제 선정과 개발자 선정의 이원화, 셋째,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 넷째, 유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중복 지원, 다섯째, 지속적인 유지 관리 문제 등이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써 첫째,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실태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고 신규 정보자원의 발굴 및 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전산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자원에 관한 실태파악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년중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측면의 정보 수요 및 이용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과제 선정은 현실적 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자 측면의 수요 조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96년부터는 이용자 측면의 정보 수요 조사 분석 결과가 공공 데이터베이스 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째, 공공데이터베이스 선정 절차의 보다 합리적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94년도 및 95년도 공공데이터베이스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과제선정과 개발자선정의 일원화 방안, 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 장기화, 상설 수요조사 창구 설치 및 지정 과제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외 과제당 다수의 정보제공자(IP)가 참여하여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표준화 연구 사업, 국내 DB 제작 유통기관들이 개발 과정에서 공동 애로가 되는 기술 부문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위한 DB개발지원 연구사업, DB개발 보급사업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재산상의 가치평가 기준이나 지적재산권 문제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맺음말

전술한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개선 방향은 그동안 공공 데이터베이스개발 과제 선정 및 개발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리한것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계획이 수립, 시행되기 이전에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나마 정부 부처별로 그 역할이 다기화되어 있는 등 여려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문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되므로써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업계와 이용자 여러분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